

이재명 외연 확장... 이승만 참배하고 윤여준 선대위원장 영입

“정치는 현실, 민생 개선이 가장 큰 몫...이념은 잠시 미뤄두자”
보수·중도 인사 영입...박용진 등 참여 통합 선대위 구성 방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 지은 이재명 후보가 진보 진영을 넘어 중도와 보수층 공략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첫 공식 행보로 28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물론 보수 진영으로 상징으로 꼽히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을 참배했다.
또 오는 30일 출범할 선거대책위원회에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분선을 앞두고 중도와 보수 진영을 꺼안는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어 서다.

이 후보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특히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등을 참배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항상 논쟁거리가 돼 왔던 이슈였지만, 이 후보는 첫날부터 보수 진영의 상징으로 꼽히는 두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하면서 과감한 중도·보수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그랬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정쟁에 빠진 때가 있었던 것 같다”며 “망인들의 평판, 망인들의 문제는 역사가들이나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현실이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몫”이라며 “가급적이면 지나간 얘기, 이념이나 진영 등은 잠깐 걸으며 미뤄두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다. 공과가 다 있는 것”이라며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런 행보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 가능성에는 “당내나 시민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많을 것이고, 저의 행보에 의구심을 갖거나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오전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전 캠퍼스를 찾아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연다.

여기에는 이념 문제에 발목을 잡힐 게 아니라 비상계엄 이후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이 후보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당내의 평가다.

이 후보는 이날 현충원 참배한 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결과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확정한 이 후보가 본선에서는 진보 진영을 뛰어넘어 중도와 보수진영까지 꺼안는 외연 확장을 통해 '필승 전략'으로 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이외에도 외연 확장 차원에서 박수의 외부 인사 추가영입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대선 경선 후보로 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 등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용진 의원이나, 당의 중진 등에도 두루 선대위 참여를 타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우 현직 공직자여서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선대위의 실무 조직은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슬람'하게 운영하되 지역 투표를 사수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대부분의 의원을 대선 기간 지역구로 투입해 대선 투표를 올리기에 매진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

민주 대선후보 자격 최고위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19일 만인 28일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면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봤다.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계모임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화합하며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며 “일단 동창회장으로 뵈려면 어느 마을 출신이든, 자기를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

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닌데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도 그 길로 가야 한다”며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져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참배객들이 많이 오는지 몰랐더니 늘었다고 하더라. 워낙 대립이 심하다 보니 서로 편을 나눠 많이 방문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세상이 힘들고 국민들도 지쳤다. 갈거리 찢어지지 않도록 통합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오늘의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가 하면 되는데, 정치 영역까지 끌어들여 와 이를 갈등의 소재로 삼는다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는 상대와 다른 점을 찾아 경쟁하면서 서로 함께 지향할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합리적 경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48.5%·김문수 13.4%·홍준표 10.2%

리얼미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도전을 확정 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8.5%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의 선호도는 전(前)주보다 1.7%포인트 감소했지만 국민의힘 대권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3자 가상대결에서는 과반 이상을 차지함은 물론 큰 격차로 앞섰다.

28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48.5%로 1위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각각 10.2%, 9.7%였다.

세 후보의 선호도는 오차범위 내였다.

143명의 유권자가 조사에 응한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60.3%로 8개 권역 중 제주(66.9%)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줄곧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선호도 50.9%를 기록, 김문수(23.3%), 이준석(7.4%) 후보를 크게 앞섰다. 국민의 힘 후보를 안철수 후보와의 바깥 조사한 가상 대결에서도 이 후보는 51.9%로 안철수(10.5%), 이준석(6.6%) 후보를 따돌렸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웹소설 창작

웹툰·애니메이션

영화·OTT

뮤지션 양성

게임·실감콘텐츠

인공지능

이스포츠

SW사업화

정보보호

GCC사관학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광주형 AI·콘텐츠·디지털 산업

광주 콘텐츠·ICT산업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선도기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소 | 광주 남구 송암로 24번가길 46 대표번호 | 062-610-2400



광주실감콘텐츠